

LS 마린솔루션(060370/KQ)

Analyst 나민식 minsik@sk.com / 3773-9503

SK증권 리서치센터

유상증자&신규투자 → 주가희석보다 신성장 동력에 주목할 시점

- 3,458억원 규모의 신규선박투자 + 2,783억원 유상증자 공시
-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장거리/대형화 추세에 맞춰서 CLV선박 필요성 높아졌기 때문임
- 주가희석보다는 신성장 동력에 주목할 시점

동사는 총 투자금액 3,458억원(자기자본대비 168%) 규모의 신규선박투자를 공시했다. 신규 선박은 2년여의 건조 기간을 거쳐서 28년 3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장거리 프로젝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양항해(ocean crossing)가 가능한 선박이 필요해졌으며, 국내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대형화 되면서 대형 선박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동사가 기존에 보유한 GL2030호는 추진력이 없는 CLB(Cable Laying Barge)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선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AI로 인한 데이터 처리량의 증가 그리고 중국의 해저케이블 파손 의혹으로 빅테크의 대륙 간 해저 통신케이블 건설이 이어지고 있다. 메타는 25년 2월 14일 Project Waterworth라는 해저케이블 건설을 발표하며 다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multi-billion Dollar)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 해상풍력단지가 약 100MW에서 500MW급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CLV(Cable Laying Vessel)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전략적으로 해저케이블 수직계열화에 성공한 LS그룹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LS전선의 미국 케이블 생산업체인 LS그린링크에서 해저케이블 생산 → LS마린솔루션이 설치 및 유지보수까지 일괄 수주를 노릴 수 있다. LS그린링크는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에서 1조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장을 착공했으며 27년 3분기 완공, 28년 1분기 양산을 목표하고 있다. 선박 인도 시점과 미국 케이블 공장 중공 시기 일정을 연계할 예정이다.

신규선박투자과 동시에 약 2,783억원 유상증자(vs. 시가총액 6,344억원)를 공시했다. 예정발행가액은 14,220원(할인율 20%)이다. 주식희석보다는 신성장 동력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1) 23년 GL2030인수 이후에 추가 선박 및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 신규선박투자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만족시킴에 따라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형 CLV(Cable Laying Vessel) 수요증가 및 LS전선과 시너지가 주식희석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